J TRUST

2019년 3월기

결산설명자료

2019년 5월

J Trust Co.,Ltd.

Copyright(C)2019 JTRUST Co.,Ltd.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2019년 3월기 실적총괄 및 향후 전략 시행

2. 2019년 3월기 연결결산개요

3. 부문별 실적

4. 2019년 12월기 연결실적예상

면책사항

- 2018년 3월기부터 국제회계기준 (IFRS) 을 도입했습니다.
- 2019년 3월기에 매각을 결의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사의 실적을 비계속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전년동기 「영업수익」「영업이익」 및 「세전이익」도 동일하게 분류하여 표시했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미래 정보 등은 자료 작성 시점의 당사의 인지, 의견, 판단 또는 예측에 따른 것으로 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실적이나 결과와는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 설명회 및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페이지에 기재된 수치는 표시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표시했습니다. 또한 표나 그래프 옆에 기재된 차이와 전년동기비 등은 억 단위로 표시, 계산했습니다.

1. 실적총괄 및 향후 전략 시행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 2019년 3월기 실적 2019년 12월기 예상

✓ 2019년 3월기는 차기 이후의 실적회복을 예견하여 부실채권 처리

I. J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부실채권 처리, 동남아시아금융사업에서 대손충당금 130억엔 전입

II. GL사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201억엔 일괄 전입

✓ 해외사업회사 증가에 따라 3월 결산에서 12월 결산으로 변경

	2019년 3월기 (12개월)		2019년 12월기 (9개월)
	영업수익	영업이익	영업이익(예상)
일본금융사업	105억 엔	42억엔	29억엔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395억엔	48억엔	33억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30억엔	-177억엔	-17억엔
투자사업	10억엔	-205억엔	-6억엔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15억엔	-0억엔	3억엔
부동산사업	64억엔	1억엔	0억엔
기타사업/조정액 등	28억엔	-35억엔	-42억엔
연결실적	749억엔	-326억엔	0억엔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BJI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재건 노력

✓ 한국의 파산 은행을 회생시킨 그룹 내 정예멤버를 인도네시아에 파견
- 한국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2년 이후 투융자잔액은 약 12배 증가
- 연중 투융자를 실행한 2014년 이후 투융자실행액(연간)은 약 20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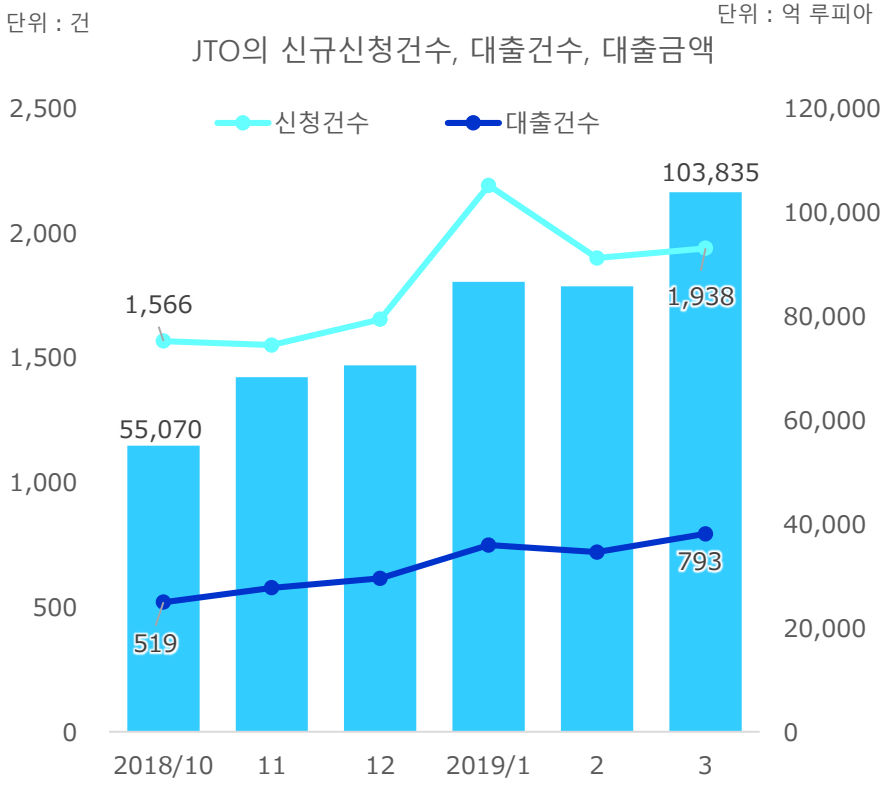
✓ JTO를 주축으로 양질의 채권 늘려 디폴트 억제

JTO의 반년간 실적

- 대출잔액(JTO+BJI)은 6개월간 6% 증가
- NPL은 6개월간 1.99%에서 기존대비 최저수준인 1.58% (총/업계평균은 2.7%)까지 축소
- Active딜러 수는 118개사에서 231개사로 증가(96% 증가)
- 농기구 딜러 수는 30개사에서 47개사로 증가(57%증가)
- 신규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은 각각 60%, 95%, 100% 증가(대출금액은 2배로)
- 대손상각비는 54%로 감소

인도네시아 향후 대책

- 리스크매니지먼트 강화(심사/회수부문)
- 자동차, 농기구 등 담보가치가 있고 환가성 높은 동산담보대출채권 증대
  →딜러 네트워크 확대와 조인트파이낸스 위주 대출
- 대기업재벌, 은행, 일본계, 한국계 기업 등 신뢰도 높은 기업대상대출
- 높은 등급의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투자 운용
- BJI의 지점을 JTO와의 공동 점포로 삼고 고객 기반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



BJI=J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
JTII=J트러스트 인베스트먼츠 인도네시아
JTO=J트러스트 올림핀도 멀티파이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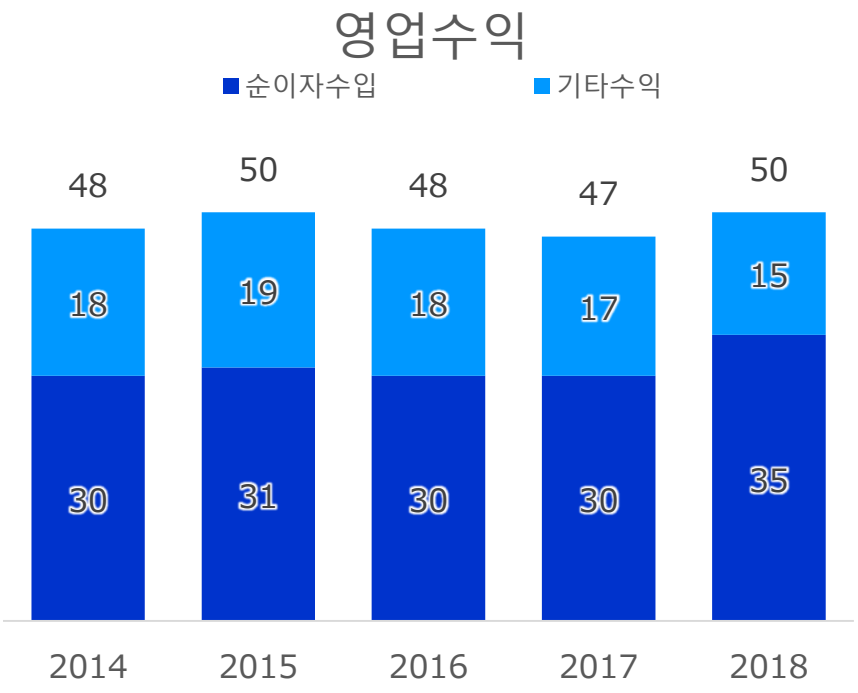
J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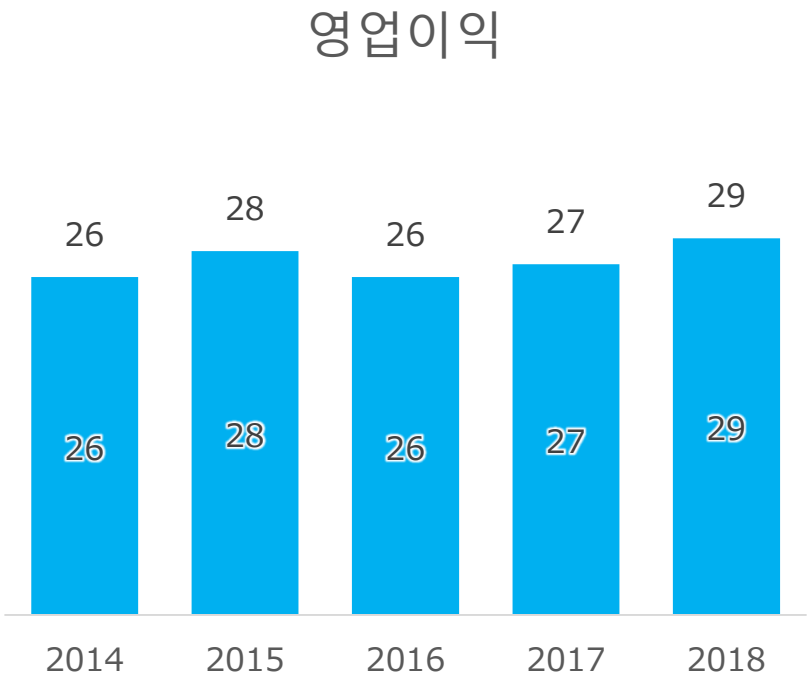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ANZ Royal Bank 진척

✓ ANZ Royal Bank의 2018년 12월기는 안정적인 이익계상 실현
✓ 그룹사 편입 준비 계속 진행

ANZ ROYAL Bank 재무실적

단위 : 백만US달러





※ 데이터는 애뉴얼리포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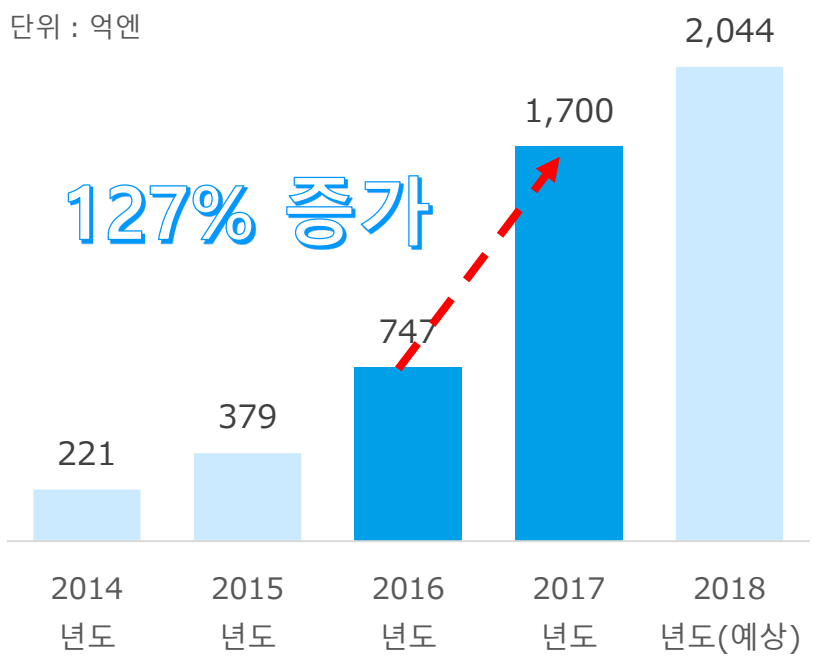
➢ 일본금융사업 : 신규 보증상품 개발과 채권회수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관건

✓ 사무라이&J파트너스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보증상품 출시 (일본보증)

I. 다양한 채권 보증 노하우를 활용한 상품으로 쇼셜랜딩사업자와의 제휴 확대

II. 지역은행 등 조달처, 투자처, 당사 모두 Win-Win

일본 클라우드펀딩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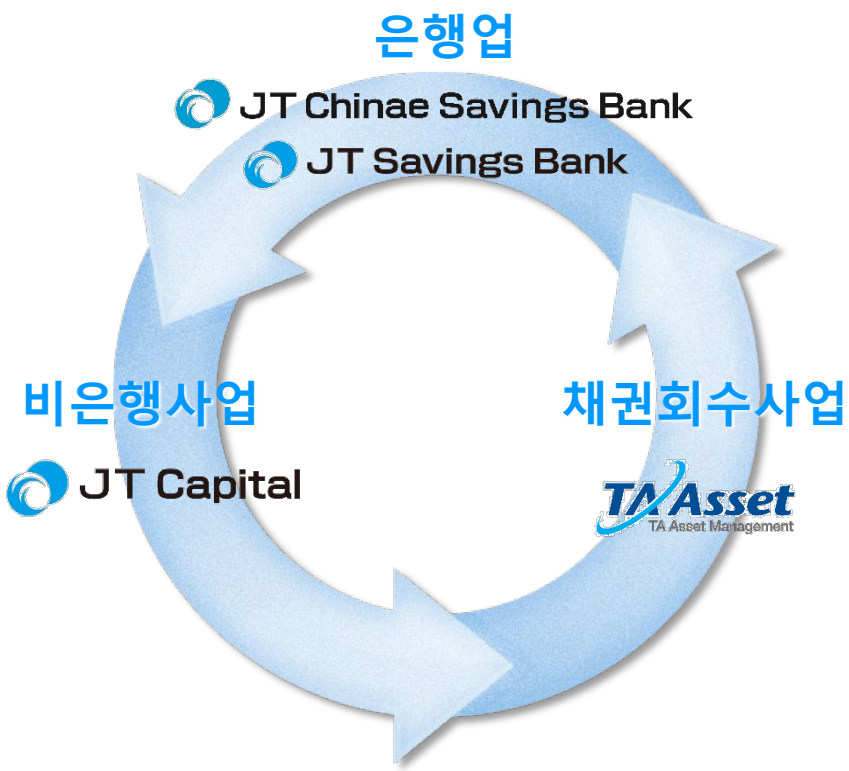
SAMURAI by SAMURAI 証券 × NIHON HOSHOU

※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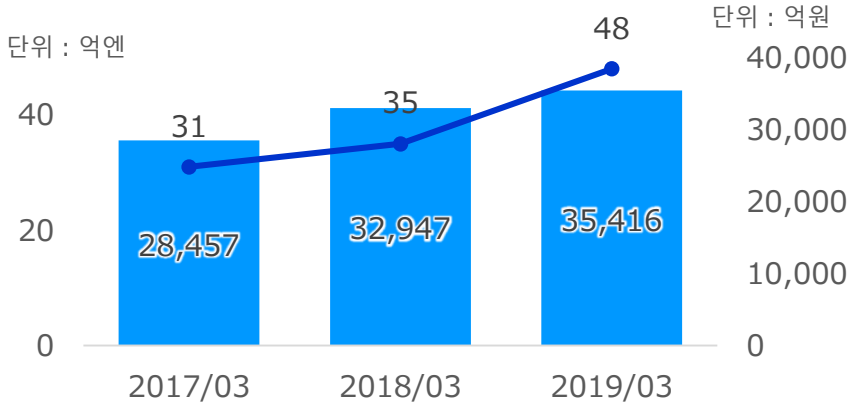
J TRUST

➢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 금융규제 변동에도 유연한 대응으로 이익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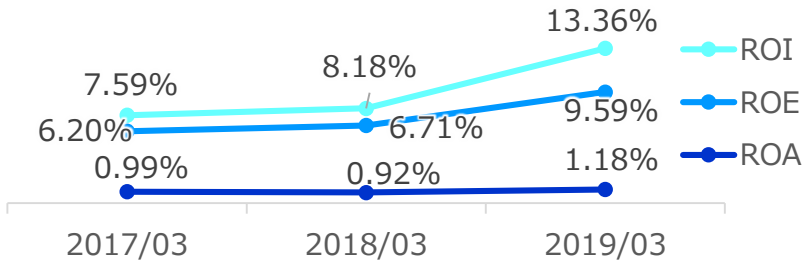
✓ 자산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균형 잡힌 리스크와 리턴 지향



한국금융사업의 자산 및 부문이익 추이



한국 4개사의 ROI ROE RO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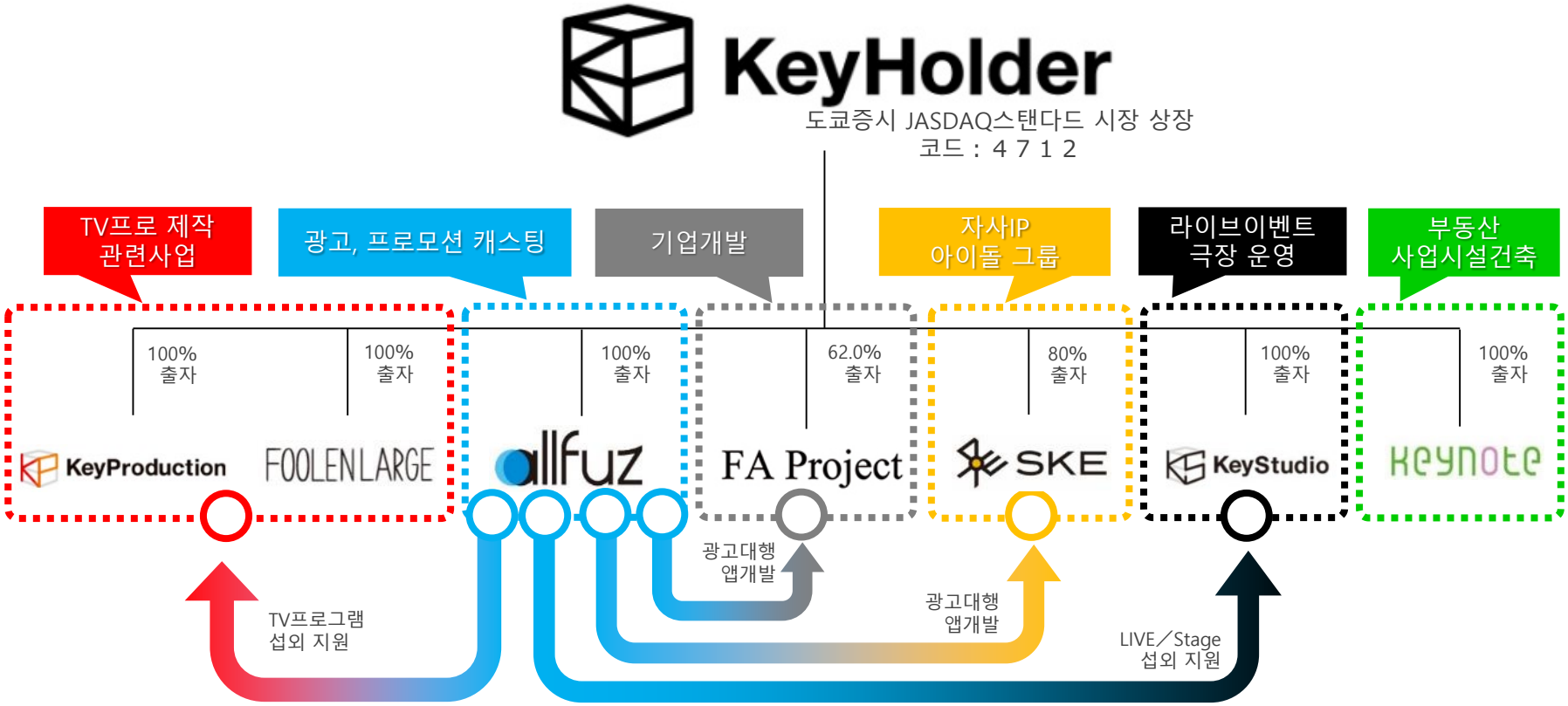
우측 그래프의 부문이익은 한국금융사업의 부문이익입니다.
자산은 은행 2개행과 캐피탈 3사를 합한 수치입니다.

J TRUST

➢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 부동산사업

✓ M&A를 통해 KeyHolder그룹은 극장, 매니지먼트, TV, 플래닝 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종합엔터테인먼트 기획집단으로 변신

✓ 키노트는 상업시설건축이 호조세



2. 연결결산개요

이사 집행임원
경영기획부부장 홍보/ＩＲ부문 담당
야마나카 다케히토

➢ 전기대비 매출증가 이익감소

연결실적 (전년동기대비)

	FY03/2018	FY03/2019	차이
영업수익※	743억엔	749억엔	+6억엔
영업이익※	47억엔	- 326억엔	-373억엔
세전이익※	28억엔	- 311억엔	-339억엔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이익	-7억엔	- 361억엔	-354억엔

※ 영업수익·영업이익·세전이익에는 비계속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 일본,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은 매출증가 동남아시아/투자사업은 매출감소

부문별 영업수익 (전년동기대비)

	FY03/2018	FY03/2019	차이
일본금융사업	90억엔	105억엔	+15억엔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358억엔	395억엔	+37억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35억엔	130억엔	-5억엔
투자사업	72억엔	10억엔	-62억엔
비금융사업	69억엔	79억엔	+10억엔
기타사업	16억엔	28억엔	+12억엔
연결영업수익	743억엔	749억엔	+6억엔

비계속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부실채권 처리 투자사업 : 대손충당금 전입으로 큰폭의 이익감소

부문별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FY03/2018	FY03/2019	차이
일본금융사업	41억엔	42억엔	+1억엔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35억엔	48억엔	+13억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5억엔	-177억엔	-192억엔
투자사업	-28억엔	-205억엔	-177억엔
비금융사업	6억엔	0억엔	-6억엔
기타사업	0억엔	0억엔	-0억엔
(조정액 등)	-23억엔	-34억엔	-11억엔
연결영업이익	47억엔	-326억엔	-373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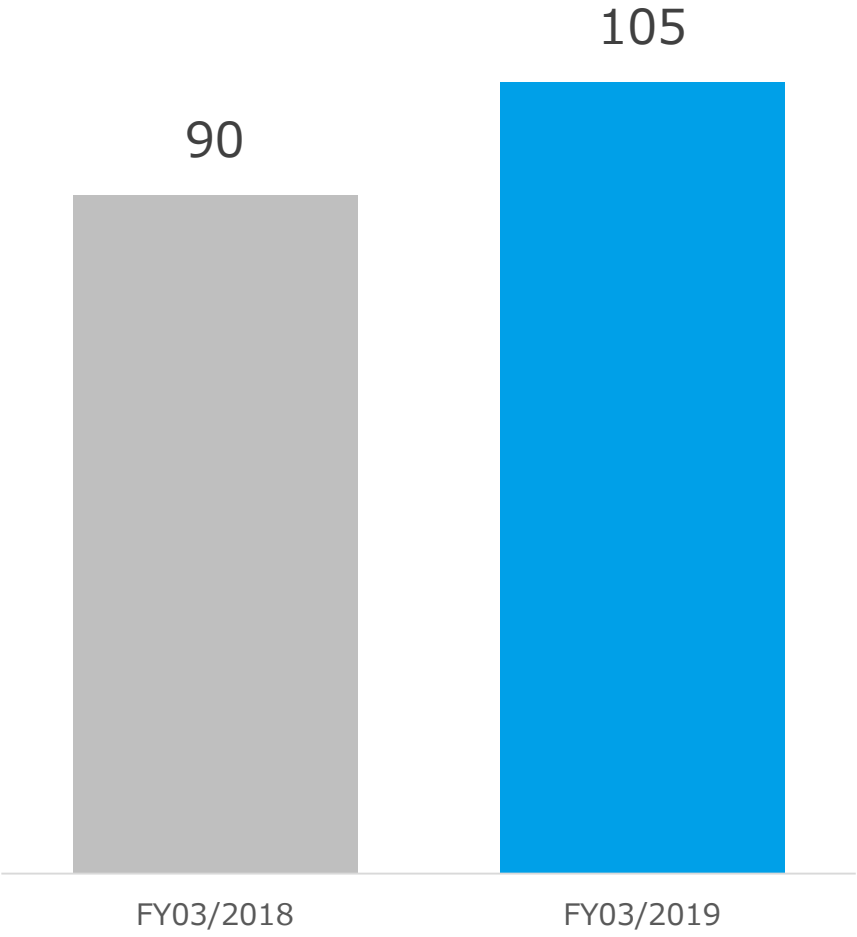
비계속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3. 부문별실적
3－1. 일본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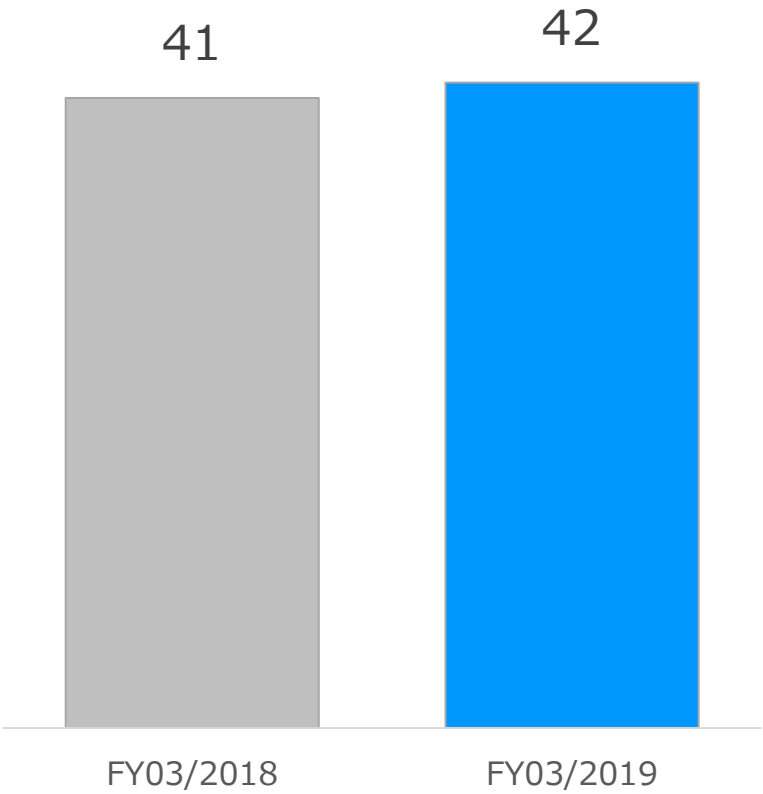
➢ 이자수익 감소를 보증료 수입 증대로 커버하여 안정적인 이익 창출

단위 : 억엔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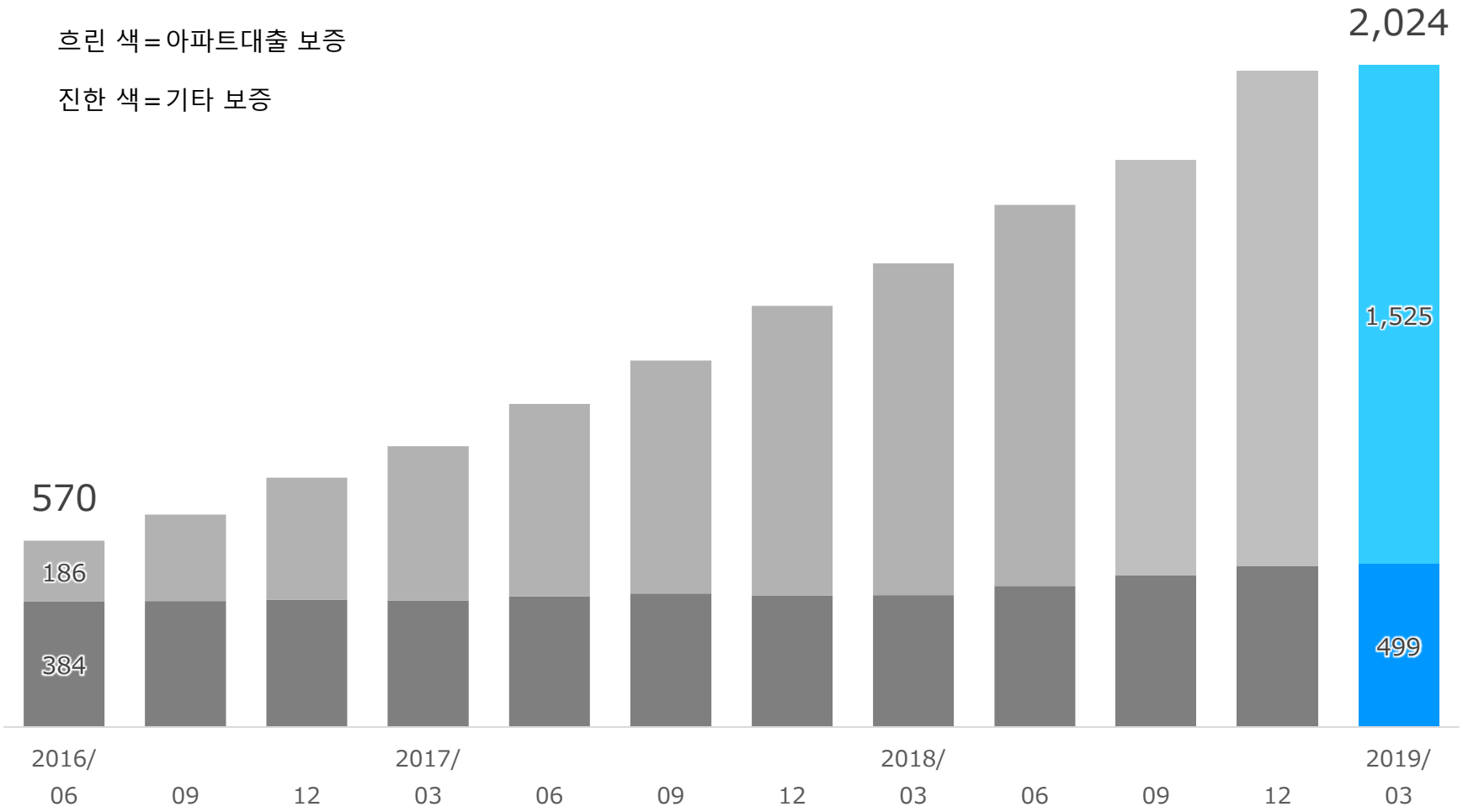
영업이익



➢ 향후 보증상품 다각화 추진

단위 : 억엔

보증잔액 추이



➢ 보증상품 다각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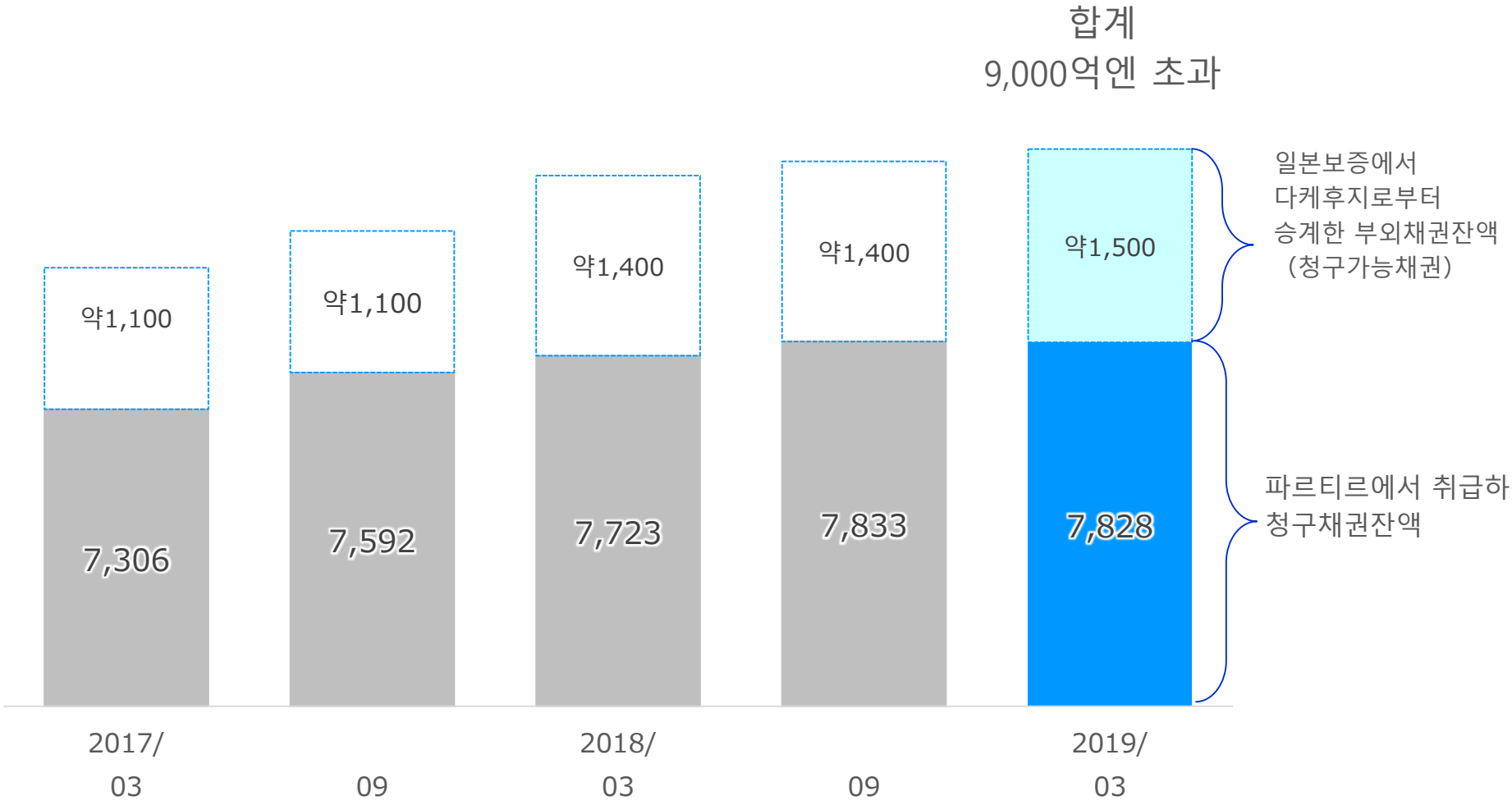
✓ 신규 보증상품으로 전환
(해외부동산담보대출, 역모기지 등)

✓ 집객 사이트 구축, 고객 맞춤형 상품 플랜 제공
(금융 창구) https://madoguchi.jp-g.co.jp/

➢ 부실채권 매입은 계속하여 호조세

단위 : 억엔

채권회수사업의 청구채권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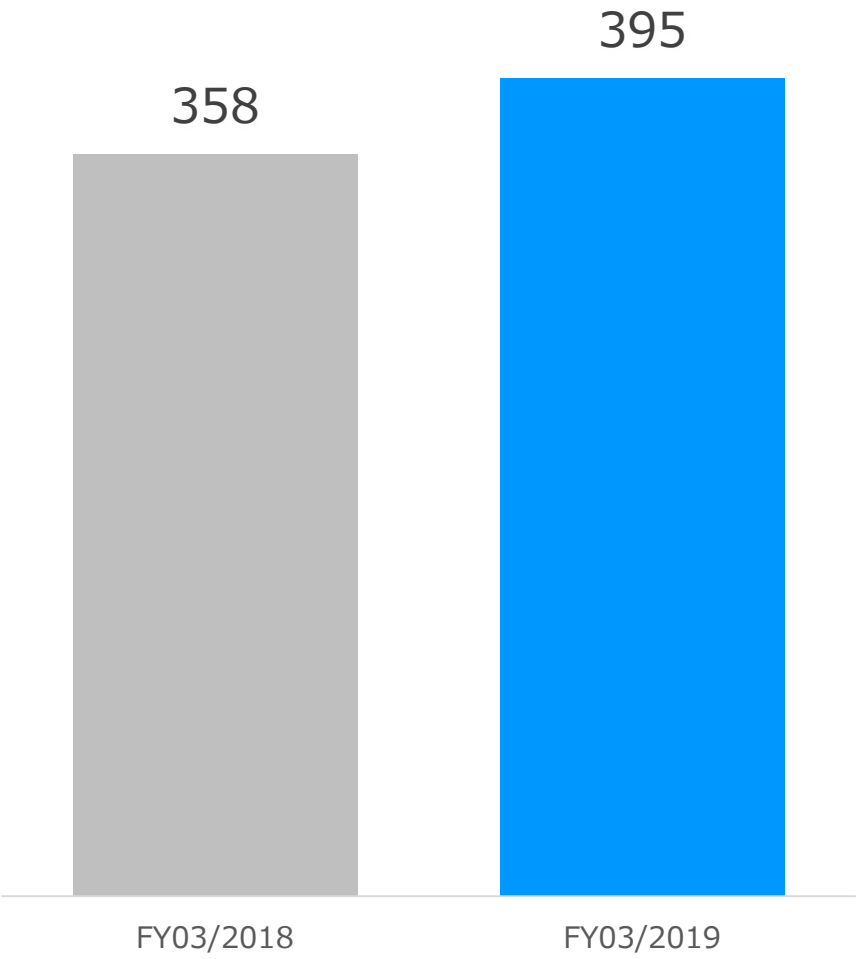
청구채권잔액은 매입채권 및 회수수탁채권 포함
청구채권잔액은 일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채권 포함

3. 부문별실적
3 – 2.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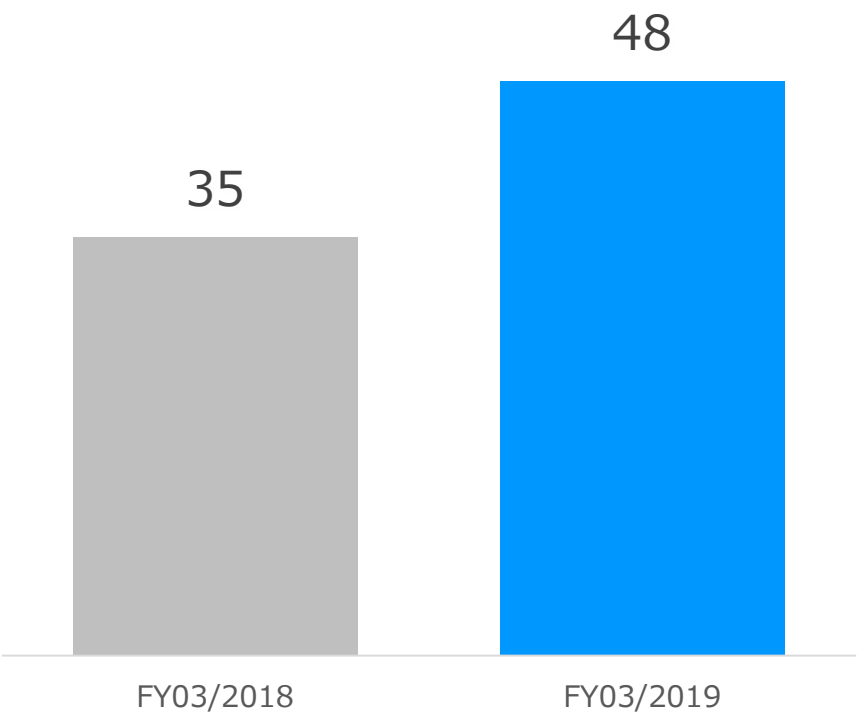
➢ 저축은행업을 비롯한 순조로운 이자수입 증가

단위 : 억엔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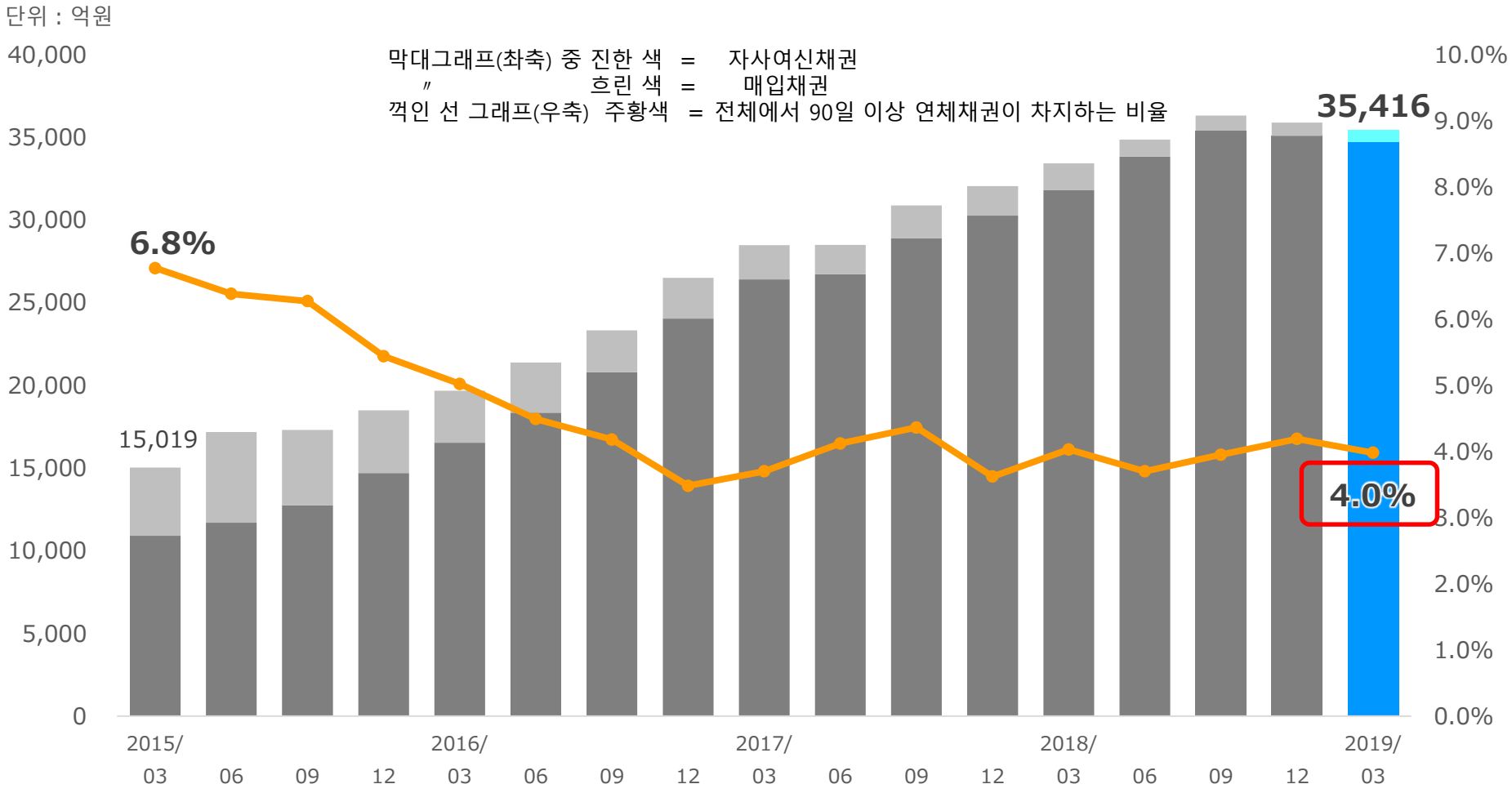


영업이익



➢ 포트폴리오의 전략적인 교체 실시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대출자산잔액과 90일 이상 연체채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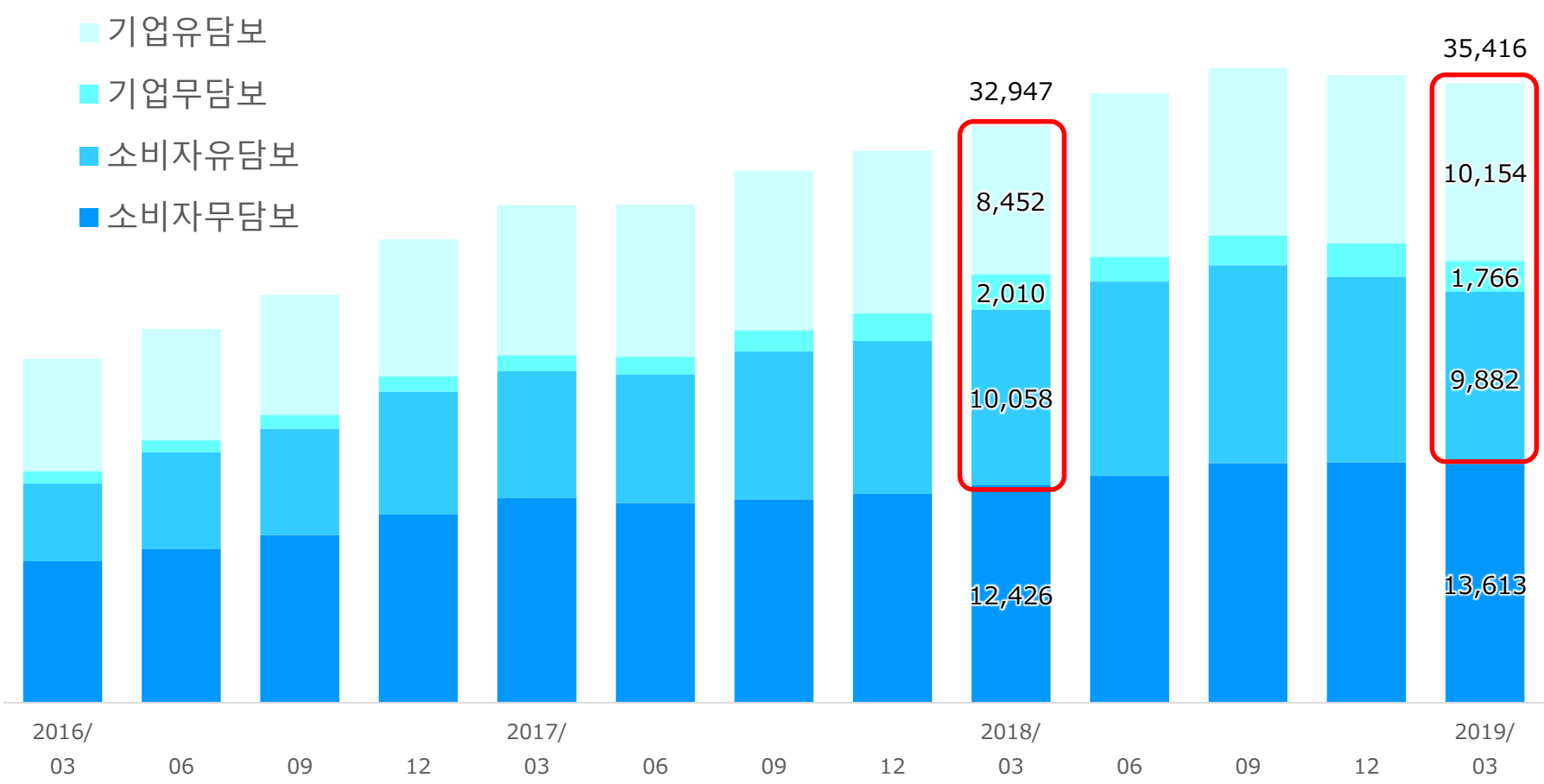
※그래프수치는 현지기준
참고환율 : 1원＝0.098엔 (3월말 결산일 환율)

J TRUST

➢ 채권의 '질'을 중시한 안정적인 대출 지향

대출자산 포트폴리오 (K-GAAP기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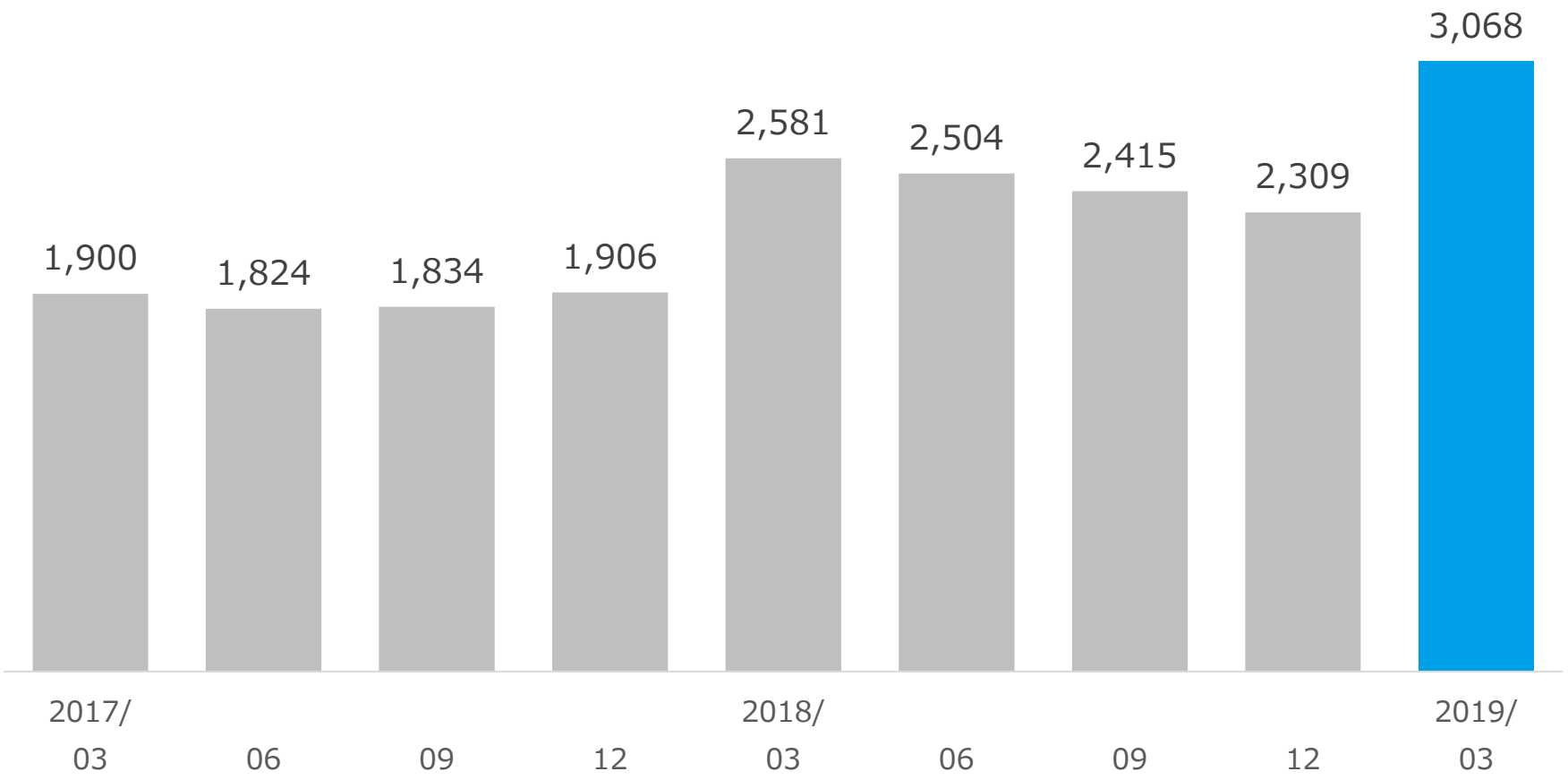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캐피탈 3개사 합계
참고환율 : 1원＝0.098엔 (3월말 결산일 환율)

➢ 채권회수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호조세

단위 : 억원

TA자산의 청구채권잔액



참고환율 : 1원＝0.098엔（3월말 결산일 환율）

J TRUST

➢ 높은 회수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TA자산의 3개년 추이

단위 :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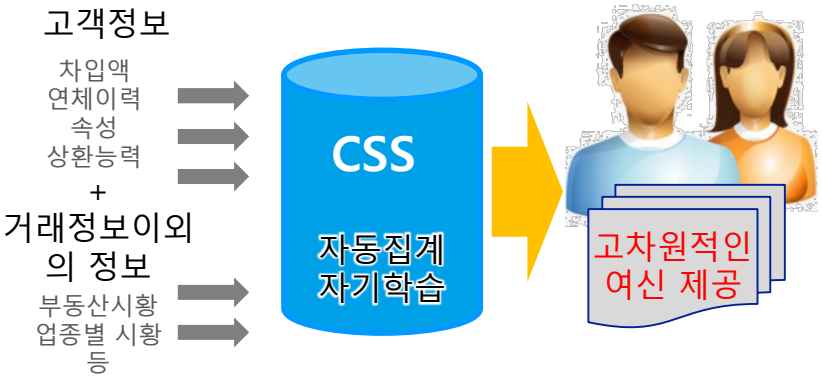
	2017년 3월기	2018년 3월기	2019년 3월기
총자산	110	115	97
자기자본	112	114	88
영업이익	13	4	8
순이익	9	2	9
ROA	8.97%	2.35%	9.81%
ROE	8.86%	2.37%	10.87%
IRR	44.0%	53.4%	42.8%

IRR은 매입후 2년 이상 경과 채권
기타 지표는 IFRS기준

➢ '양'보다 '질'을 의식하여 균형 잡힌 영업자산 증대

- ✓ 빅데이터를 사용한 심사시스템 도입으로 고차원적인 여신 제공
- ✓ 양질의 고객층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브랜드 전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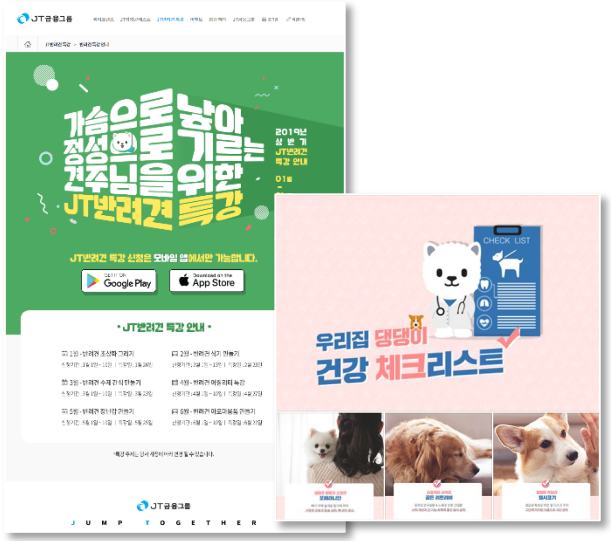
신용 스코어 시스템에
머신러닝 기능 추가



Fintech의 활동으로
보다 정밀한 스코어링(심사) 가능

모바일 WEB 채팅
로봇 상담 버튼

양질의 고객 확보를 위해
마케팅 활동 실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유층 대상
이벤트 개최로 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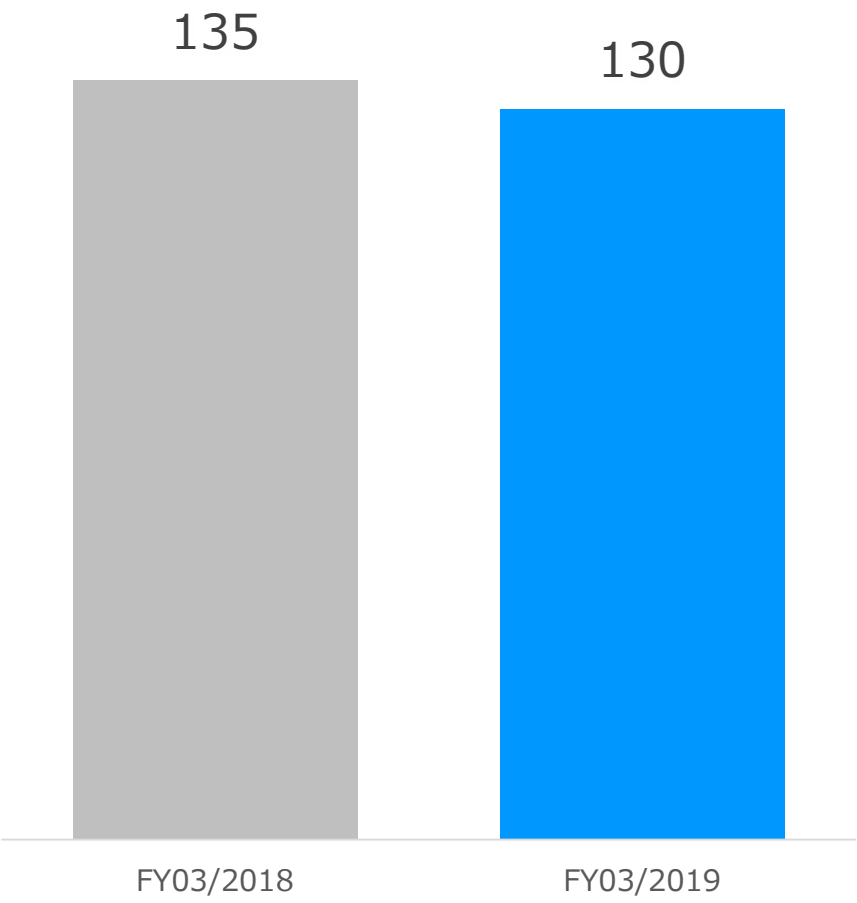
3. 부문별실적

3 – 3. 동남아시아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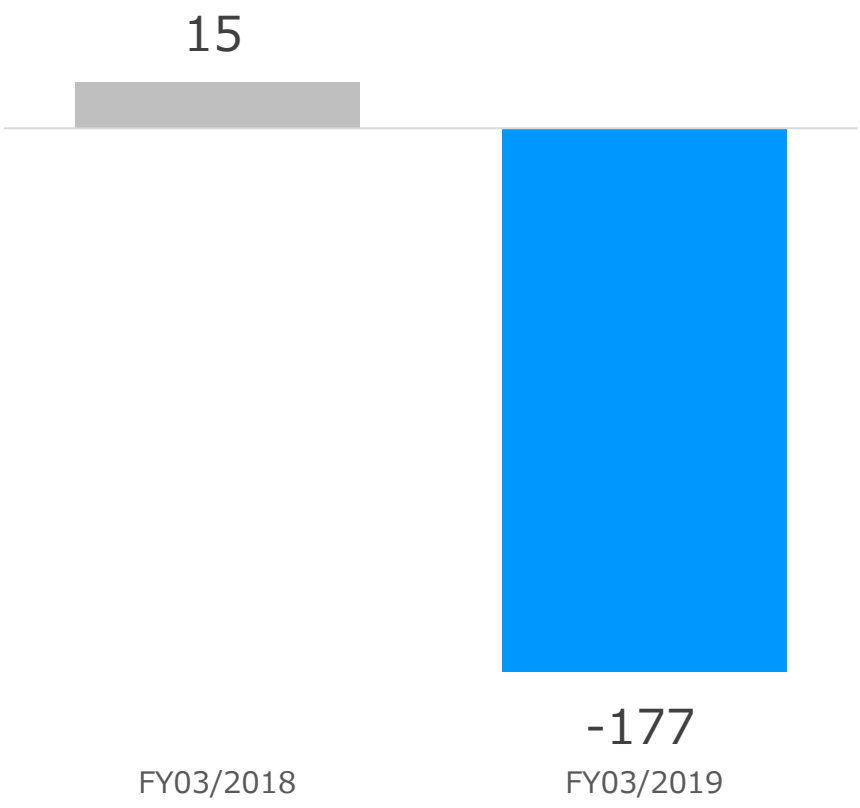
➢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이 손실의 최대요인

단위 : 억엔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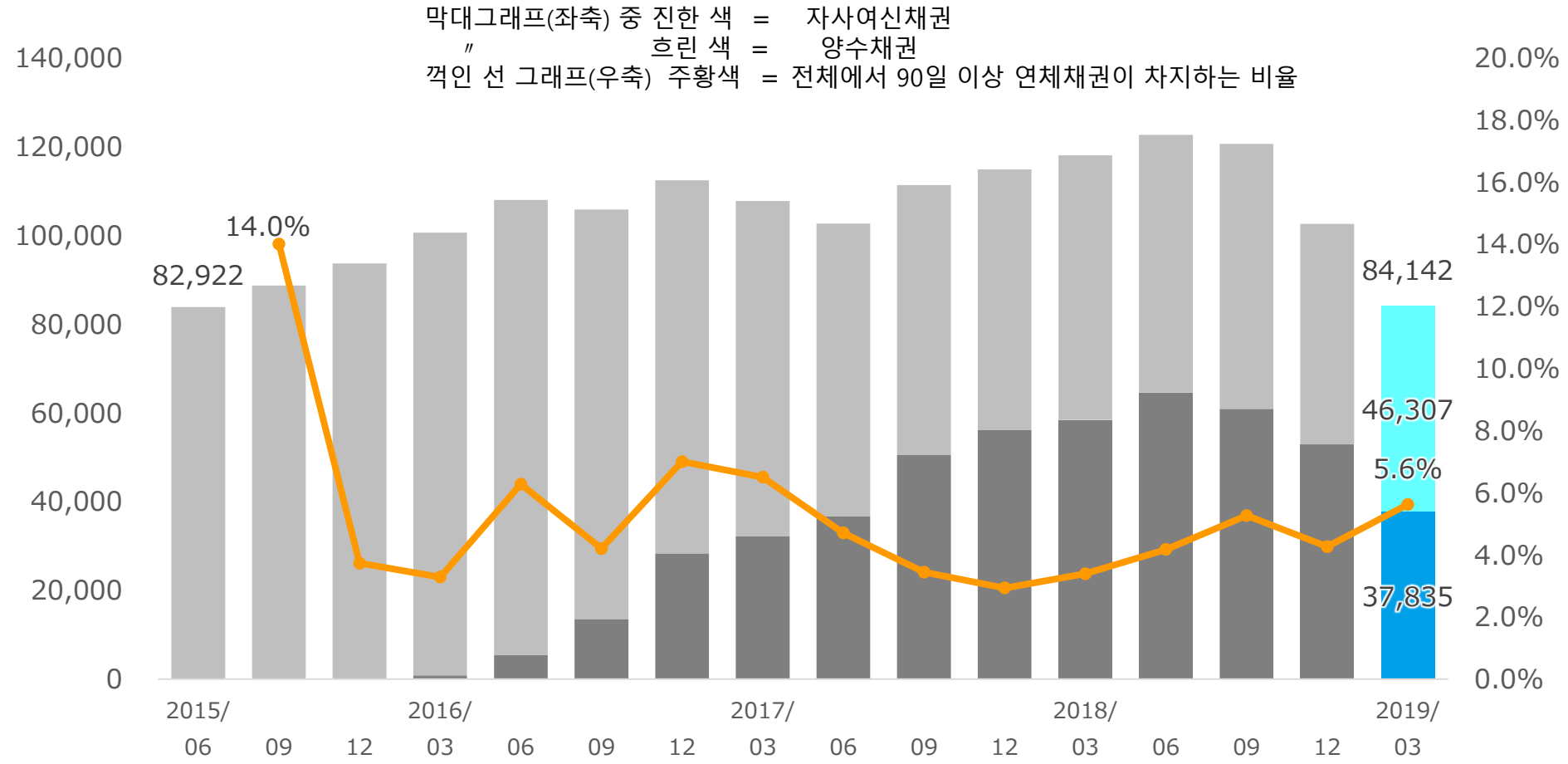
영업이익



➢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잔액 감소

J트러스트 은행 : 대출자산 잔액과 90일 이상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루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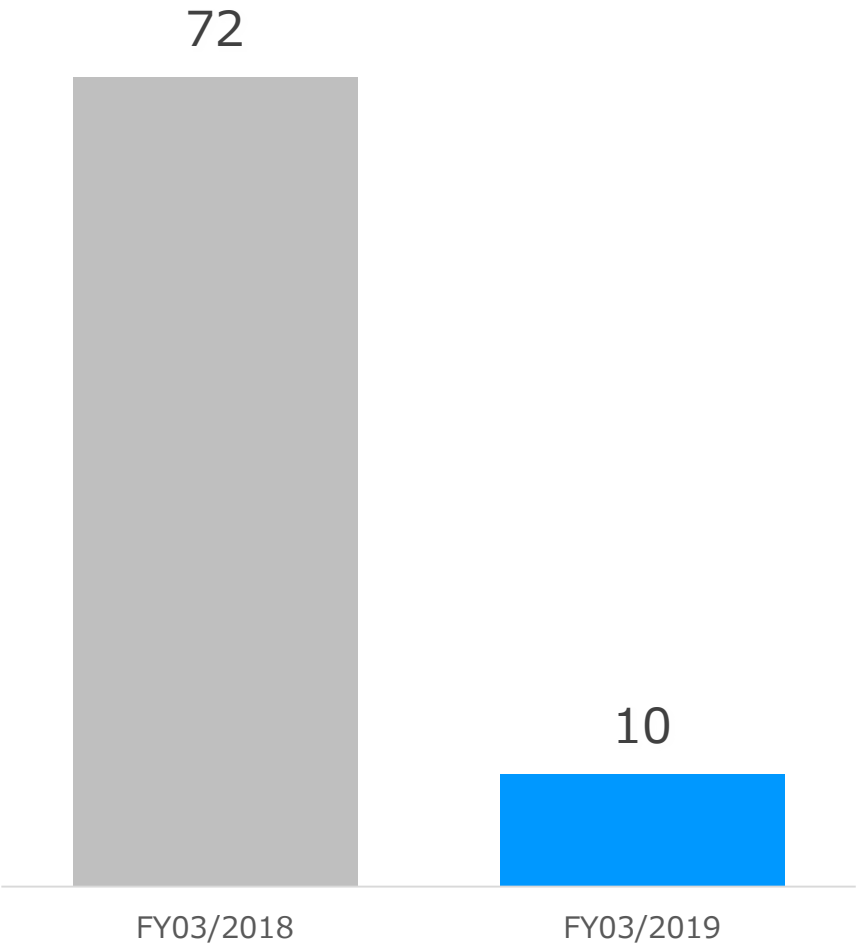
※그래프 수치는 현지기준
참고환율 : 1루피아＝0.0077엔 (3월말일 결산일 환율)

3. 부문별 실적
3 – 4. 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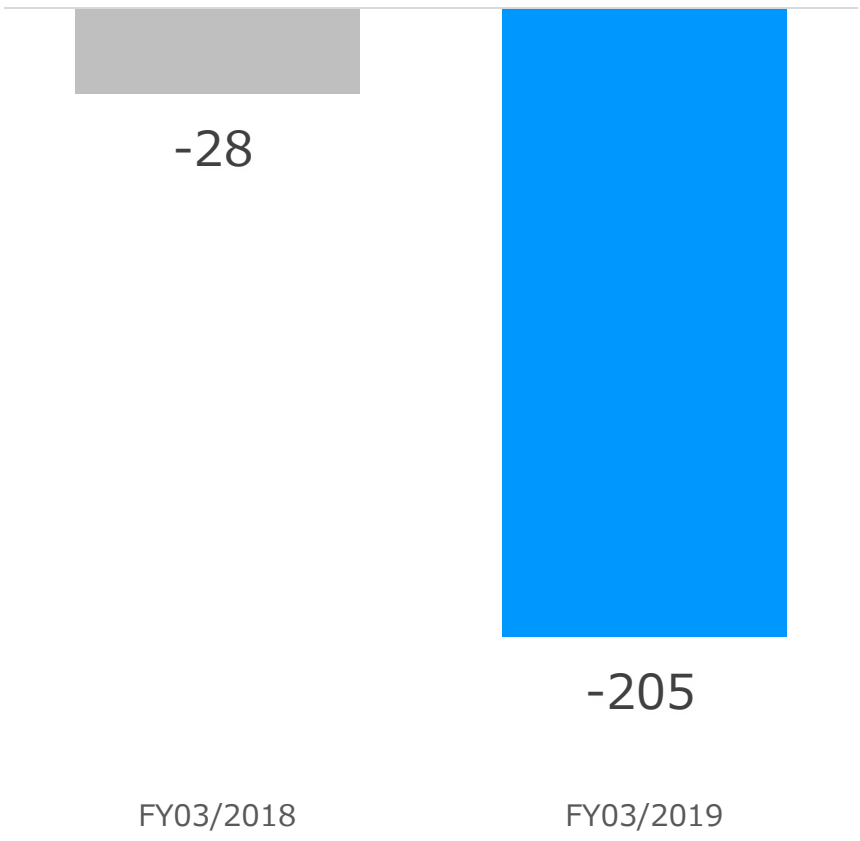
➢ GL사 관련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전입

단위 : 억엔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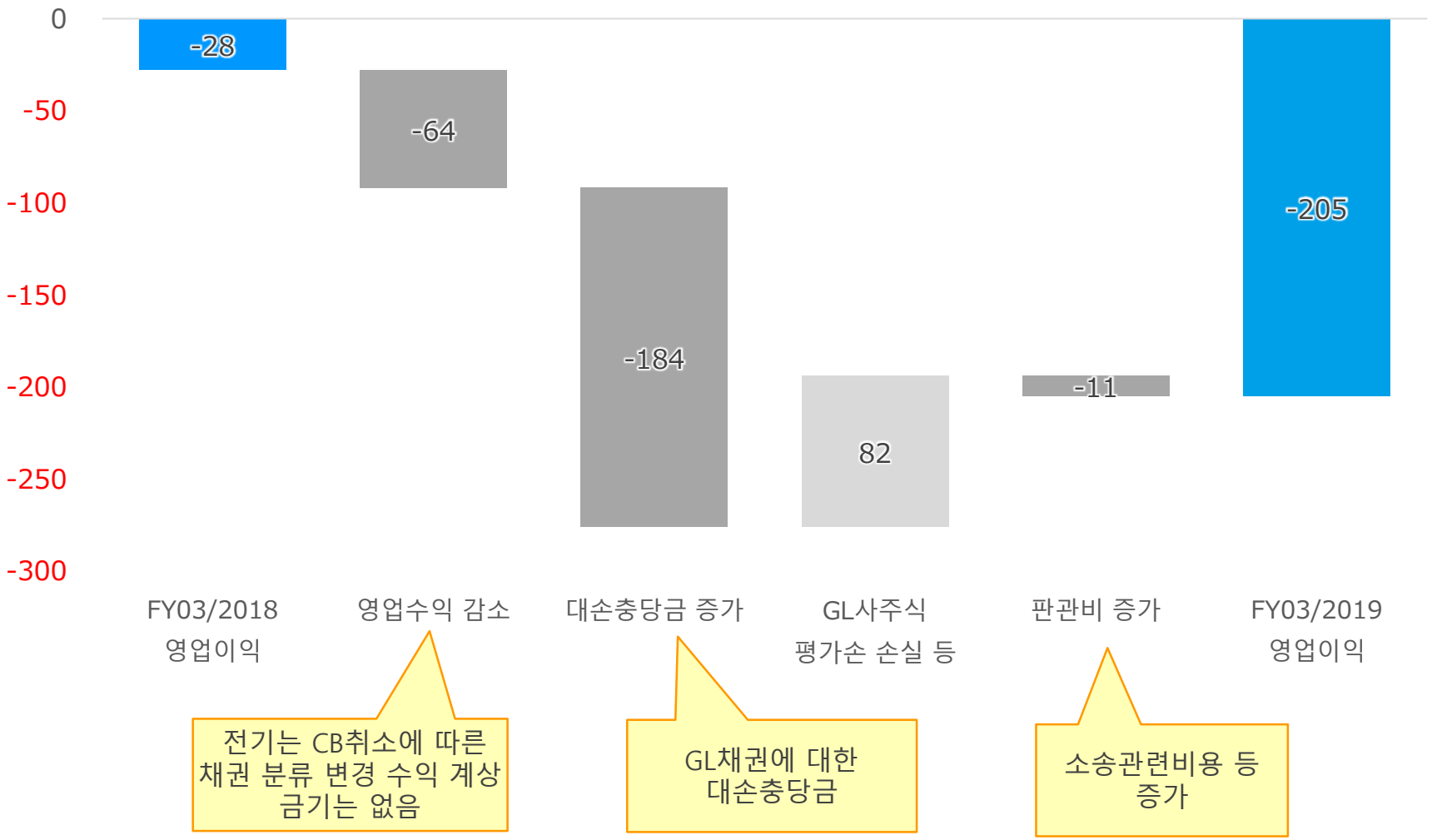
영업이익



GL사＝그룹리스 사

➢ J트러스트 아시아의 부문이익 변화

단위 :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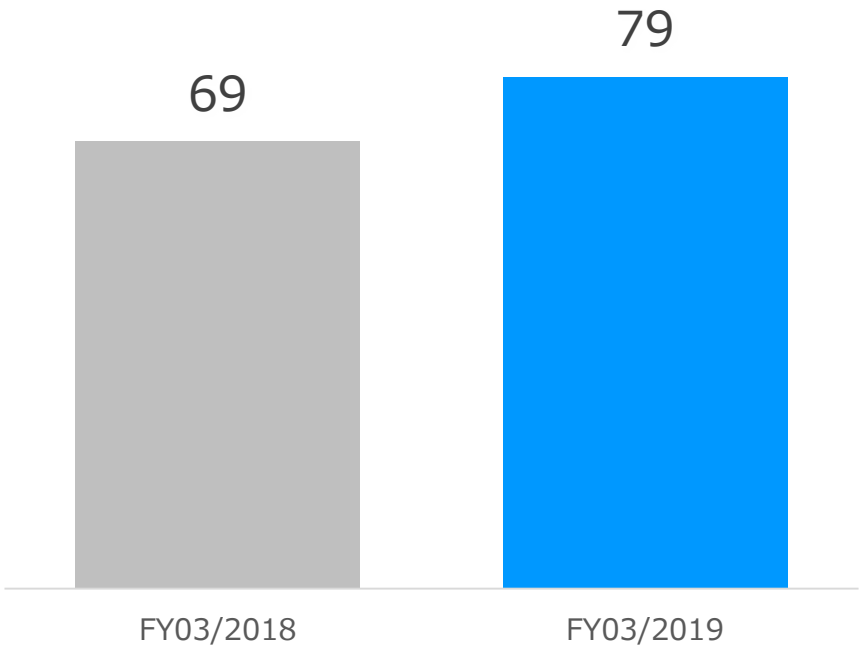


3. 부문별 실적
3 – 5. 비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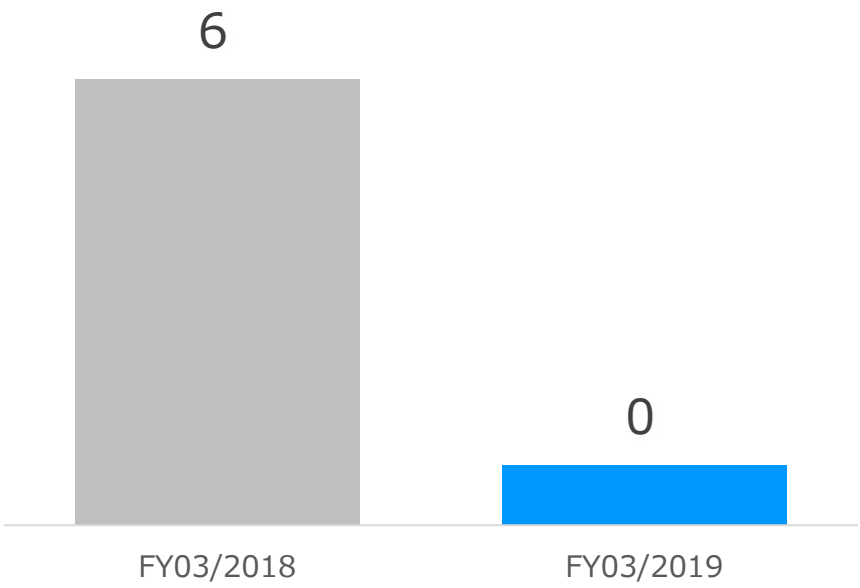
➢ 2019년 3월기는 사업확대를 위한 M&A 실시

단위 : 억엔

영업수익



영업이익



주요 요인	부동산사업 (키노트)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키홀더그룹)
영업수익	64억엔	15억엔
영업비용/판관비/기타비용	63억엔	15억엔
영업이익	1억엔	- 0억엔

비금융사업＝부동산사업 및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키홀더 그룹＝키홀더/키스타디오/키프로덕션/FA프로젝트/SKE
비금융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4. 2019년 12월기 연결실적예상

➢ 연결실적예상 수립 시의 전제조건

- 당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결산기 변경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 환율은 각국 진출 시부터 2019년 3월말까지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 싱가포르 달러 : 82.63엔　　1 인도네시아 루피아 : 0.0084엔　　1 몽골 투그릭 : 0.0473엔
  1 한국 원 : 0.093엔　　1 US달러 : 110.99엔

  또한 2019년 4월말일 각국 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싱가포르 달러 : 82.04엔　　1 인도네시아 루피아 : 0.0079엔　　1 몽골 투그릭 : 0.0421엔
  1 한국 원 : 0.0966엔　　1 US달러 : 111.85엔

- 투자사업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이외의 영향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부문별 실적예상

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

		FY03/2019 실적	FY12/2019 예상 ※4/1~12/31 9개월간
일본금융사업	영업수익	105억엔	69억엔
	영업이익	42억엔	29억엔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영업수익	395억엔	289억엔
	영업이익	48억엔	33억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영업수익	130억엔	129억엔
	영업이익	-177억엔	-17억엔
투자사업	영업수익	10억엔	10억엔
	영업이익	-205억엔	-6억엔
기타/연결조정	영업수익	108억엔	144억엔
	영업이익	-19억엔	-38억엔
합계	**영업수익**	**749억엔**	**643억엔**
	영업이익	**-311억엔**	**0억엔**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J TRUST